

전일 주요 시장 요약

- 미국 7 월 채용 공고 건수는 +617,000 건 증가하여 5 개월 내 최고치 6.618 million 건으로 예상치인 6.000 million 보다 +617,000 건 증가하며 강세를 기록
- 월러 ECB 집행위원회 위원은 "경제 전망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일시적인 비상 조치를 적시에 종료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적인 정책 조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언급
- 중국 8 월 CPI는 예상치와 동일한 전년 대비 2.4 %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8 월 PPI는 전년 대비 -2.0 % 하락하여 예상치인 -1.9 %보다 하회
- 일본 8 월 공장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23.3 % 감소하였으며, 이는 23 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나, 최근 1-1 / 2 년 내 가장 적은 감소세를 기록

주식 시장

- 수요일 S & P 500은 S & P 500 + 2.01 %, Dow Jones + 1.60 %, Nasdaq 100 + 2.96 %로 크게 상승.

강세 요인 에는 (1) 미국 7 월 채용 공고 건수는 5 개월 내 최고치 6.618 million 건으로 예상치인 6.000 million 보다 +617,000 건 증가하며 강세를 기록

(2)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ECB 정책 입안자들이 유로존의 경제 회복으로 올해 유로존 GDP와 민간 소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 Stoxx가 + 1.76 % 상승, (3) 화요일 급락이후, 기술 주의 반등

금리 시장

- 수요일 12 월 T- note 는 하락세로 마감. 약세 요인에는 (1) 주식의 상승세로 T-notes에 대한 안전 자산 수요가 억제,

(2) 미국 7 월 채용 공고 건수가 예상보다 강세를 기록, (3) 미 재무부가

350 억 달러 규모의 10 -년 T-note 입찰
예상

외환 시장

• 수요일 달러 지수는 4 주 내
최고치에서 하락하여 마감. 달러 지수 -
0.190 (-0.20 %), EUR / USD +0.0026 (+
0.22 %), USD / JPY +0.16 (+0.15 %).

약세 요인에는 (1) 주식의 급격한
상승으로 달러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감소,

(2)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목요일
예정인 ECB 회의에서 올해 유로존
GDP와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세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EUR / USD가
강세가 반영

귀금속 시장

• 수요일 달러 지수는 4 주 내
최고치에서 하락하여 마감. 달러 지수 -
0.190 (-0.20 %), EUR / USD +0.0026 (+
0.22 %), USD / JPY +0.16 (+0.15 %).

약세 요인에는 (1) 주식의 상승세로
달러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억제, (2)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목요일

예정인 ECB 회의에서 올해 유로존
GDP와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세로 ECB
정책 입안자들이 유로존의 경제 회복에
대한 예측에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EUR / USD가 강세가 반영

에너지 시장

• 수요일 10 월 원유와 휘발유는
상승세로 마감. 10 월 원유 +1.29 (+
3.51 %) 및 10 월 휘발유 +0.0165 (+
1.50 %).

강세 요인에는 (1) 달러 약세, (2) EIA
월별 단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미국
2021 년 원유 생산량이 8 월의 1,114 만
bpd에서 1,100 만 bpd로 감소, (3)
목요일 발표 예정인 주간 EIA 원유
재고는 -250 만 bbl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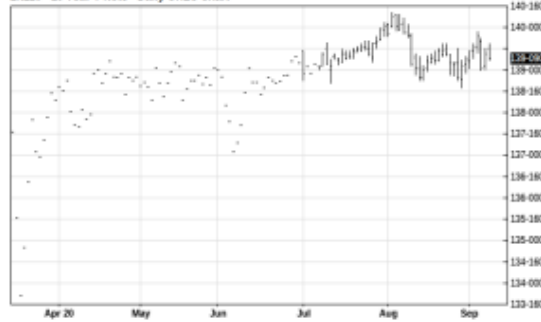
SSPX - S&P 500 Index - Daily OHLC Chart



CLV20 - Crude Oil WTI - Daily OHLC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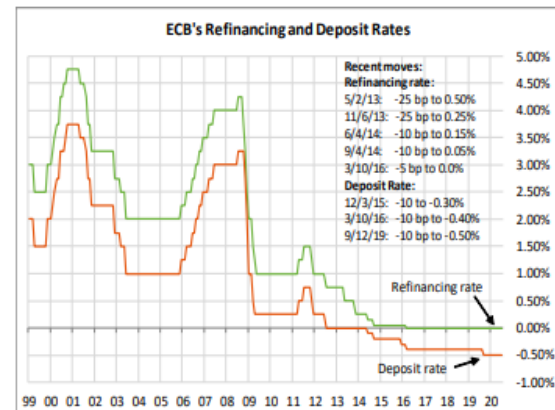


ZN220 - 10-Year T-Note - Daily OHLC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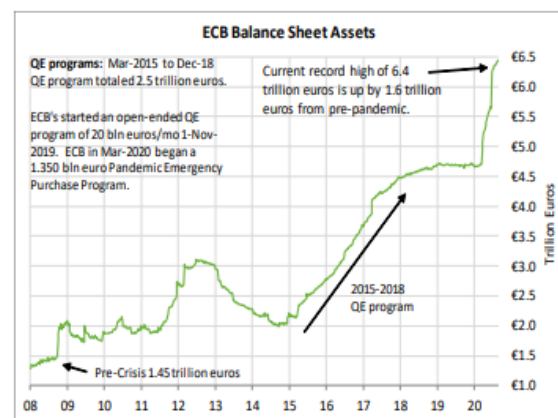


ECB, 하반기 경제 회복 지켜보며 정책 동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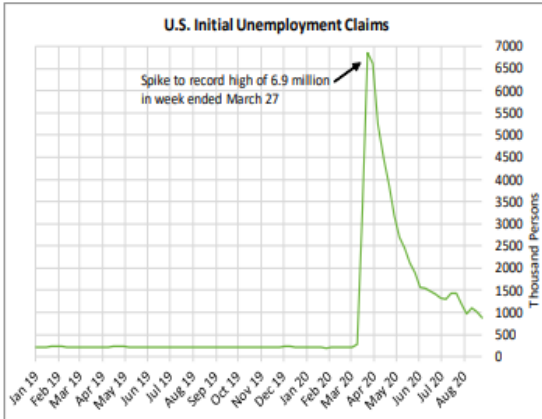
DX100 - U.S. Dollar Index - Daily OHLC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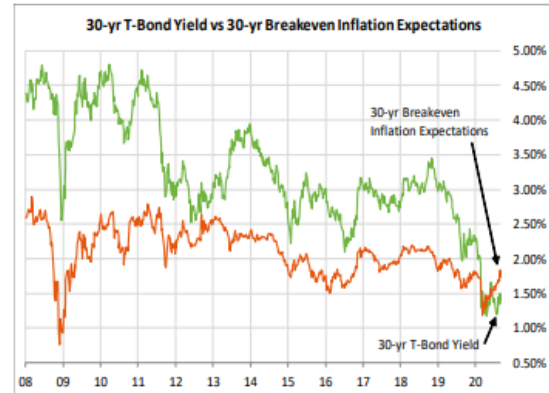
GC220 - Gold - Daily OHLC Chart



미국 실업 청구 건수, 여전히 높은 수준 예상



미 재무부, 30 년 만기 T-bond 입찰



미국 PPI, 여전히 낮은 수준

